

주일 예배 11시

2017년 9월 17일 (셋째 주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리잡음

예배로의 부름

사회: 김성진 집사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620장) 다 함께

*기도 주기도문 다 함께

*교독문 53번 다 함께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9장) 다 함께

기도 김동진 형제

찬송 예수 더 알기 원하네(453장) 다 함께

말씀 고명환 목사

-예수 그리스도: 1 생명의 떡(요한복음 6장 41-51절)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95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성경읽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읽을 성경:시편 125-131편,
출애굽기(21-40장)

- 기도해 주세요-
- 1. 팔루스 교회에 주님의 예비한 영혼들 보내 주소서
- 2.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고 주님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 3.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지켜 주소서
-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순례자의 목상

우리가 이사야에서 읽을 수 있는 네 왕은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들은 다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해서 나름대로 생각은 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한다면, 웃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버이 여기고 행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 되는 요담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서워서 자기 평생토록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담도 팔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왕위에 앉아 있다가 이 땅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를 자상하게 보여준 표적이었습니까?

그렇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나의 임마누엘로 늘 모시고 사는 나름대로의 강함과 복스러움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성전된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된 삶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분명하여서 주변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도 ‘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강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 주님 모신 경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죄악 가운데서 무너져 버리는 그 처참한 모습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성전된 삶! 그 점이 있었을 때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 주님과 동행하는 자

장덕주

“내 안에 거하라”

이희옥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주님께서는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시며
 나의 머리털까지 계수하고 계십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지 못하고
 흙탕물처럼 혼탁하였을 때에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망각하고
 형제를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했던 것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황량한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감당하기 힘든 그 어둠도
 빛 되시고 길동무 되어주시는
 내 주님과 동행하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저 천성 향하여
 담대히 걸가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사모함에
 긴 밤을 새워보고 싶습니다.
 내 주님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므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내 주님과 동행 속에
 기쁨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를 이길 수 없어서
 나에게서 쓴 물이 나오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단물 가득하네요.

 사랑하는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오늘도
 보좌에 계신 내 주님 바라봅니다.

 내 주님과 의 하루길,
 좁은 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내 주님의 한없으신 은혜로
 오늘도
 내 영혼 주님의 은혜로 채워보렵니다.



PALOUSE KOREAN CHURCH



2017년 9월 17일(38주) 31권-38호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